

바꾸자 그리고 희망을 쏘자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설문

인류의 '목탁' 위해 경쟁력 더 높여야

개선해야 할 점

승가교육이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은 필요성을 넘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기인 듯하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복수(2개까지) 가능으로 묻은 결과 '스님의 자질'을 든 응답자(19%)가 가장 많았다. 불교신도(15.9%)들도 이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이러한 응답은 말 그대로 '자질이 낮다'는 뜻보다는 '승가교육체계의 개혁'을 요구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다른 문항에서 어떤 종교의 성직자가 가장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3%가 불교라고 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천주교(41.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승가교육체계 개혁 필요

재정투명·사회참여 저조

계종만 해도 출가해서 정식 스님인 비구(니)계를 받기까지의 교육 기간과 내용이 다른 종교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은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사회참여 부족'(14.6%)과 '기복화'(11.5%)를 든 응답자의 비율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다음으로 많은 불교신도들이 '사회참여 부족'(12.8%)과 '기복화'(11.8%)를 든 데 반해 스님들은 '내부 분열'(25.3%)과 '사찰재정 불투명'(14.2%)을 들었다는 점이다. 일반인들이 '스님의 자질'(12.3%)이나 '사회참여 부족'(12.3%)보다 '내부 분열'(14.4%)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대목이다. 이 질문에 대한 불교신도들의 무응답 비율이 무려 30.9%에 달한다는 것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드러내놓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꺼려워 하는 불교계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한국불교의 현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절대 다수가 '불교가 변화야 한다'고 보면서도 불교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아니다'는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모순인 듯한 이번 결과는 불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과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높은 기대치'와 그러한 눈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전체의 94.8%를 차지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의 36.4%는 '개혁 수준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대로가 관찮다'는 응답은 4.2%에 머물렀다. 일반인(26.3%)보다는 불교신도(37%)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강도의 변화를 요구했고,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개혁적 수준의 변화'(45.5%)를 요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의 30.4%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29.1%)이라는 응답이 바짝 뒤를 쫓았다. 다른 종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22.8%)과 구세대와 구태가 여전하기 때문(17.4%)이라는 응답도 비슷한 비율로 거론됐다. 불교신도들은 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점(30.9%)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일반인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2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국민에게 희망주는 종교다 44%

가히 '종합병원'이라고 부를 만한 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지금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44%가 '그렇다'고 응답해 '아니다'(32.8%)를 앞섰다. 앞서 질문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 필요'를 고른 응답자 중 '희망을 주고 있다'(26.9%)고 답한 사람이 '아니다'(15.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개혁적 수준의 변화'를 요구했던 응답자의 경우 '아니다'(16.6%)는 답이 '희망을 주고 있다'(13.8%)보다 높게 나왔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한국불교의 앞날

"21세기 인류의 대안은 불교 사상이다." 21세기 들머리에 유행처럼 회자되면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천주교(6.3%)에 근소한 차이로 개신교(5.5%)를 앞섰으나 불교와는 차이가 컸다. 스님과 불교신도들이 '불교'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87%와 85.6%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종교가 없거나 불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천주교(38.9%)—개신교(16.7%)—불교(6%) 순으로 답해 뚜렷한 인식 차를 보였다. 또 이들 일반인의 경우 '막연한 느낌' 때문에 그 종교를 선택했다는 응답(29.8%)이 두 번째로 높아, 사찰 수련회나 템플 스테이 등에 대한 일반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불교에 대한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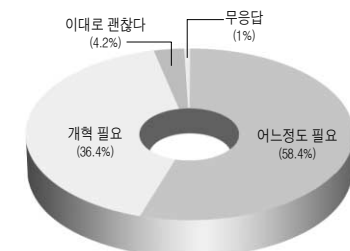
미래 걸맞는 교리·사상 갖춰 75%

희망적인 것은, 40(81.8%)·50(82.8%)·60대(79.2%)뿐 아니라 20대(51.1%)에서도 불교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20대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는 각각 10%, 8.8%에 그쳤다.('없다'가 23.4%) 20대 90명 중 33.4%(31명)만이 불교신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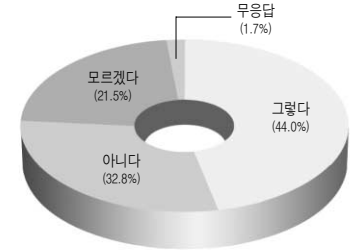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 그 종교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전체의 57.4%가 "그 종교의 교리가 미래사회에 걸맞은 사상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18.6%)이 다음으로 많았다.

종합하면, 미래사회에 걸맞은 사상체계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며, 불교가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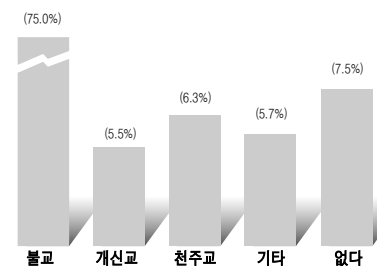
불교의 변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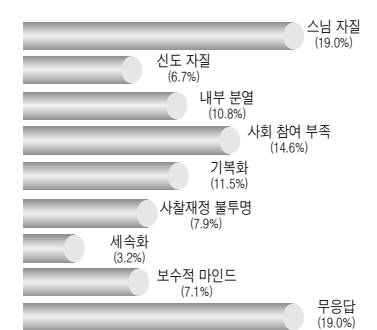
불교는 희망을 주고 있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해동제일지장기도영험도량

충 효 사

회 주 원감 석해공 합장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번지 / 전화 054)338-8196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주말용맹정진기도 약사도량 무학사 / 전화 054)262-3802

천일지장경독송회 근본도량 염불원 / 전화 054)272-1077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충효자비원 / 전화 054)338-1152

한가지 소원성취

약사여래부처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갯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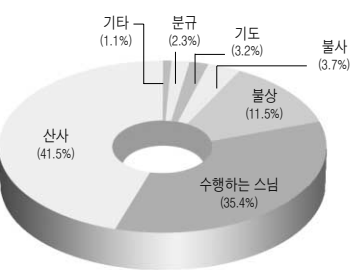


대 중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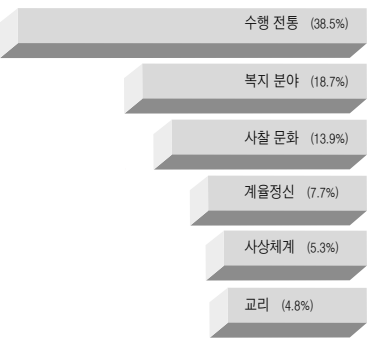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전화053)851-1868(선본사) / 053)851-1869(갯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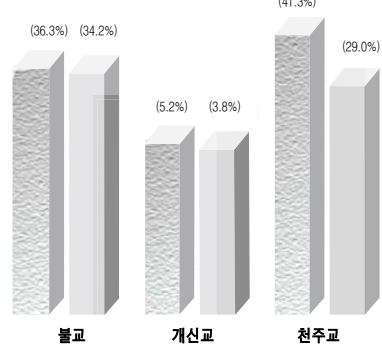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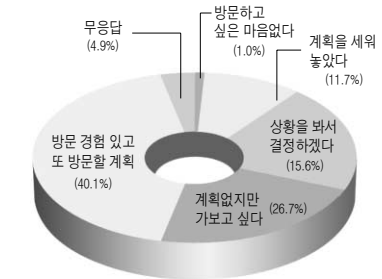
한국불교가 발전시켜야 할 것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사찰 방문 계획은?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산사(山寺)’였다. 전체 711명 가운데 295명(41.5%)이 이렇게 답했으며, 다음으로 252명(35.4%)이 ‘수행하는 스님’을 택했다. 10명 중 8명이 산사와 수행하는 스님을 불교의 대표적 이미지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불상(11.5%)·불사(3.7%)·기도(3.2%)·분구(2.3%) 순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산사’의 경우는 일반인이, ‘수행하는 스님’은 스님이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산사와 수행하는 스님을 선택한 비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산사-수행-불상-불사-기도의 순

이같은 결과는 불교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산사와 수행하는 스님이 많이 꼽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고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분구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불교에 대한 이미지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수행법은 참선이었다. 334명(46.9%)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불교 수행법으로 ‘참선’을 꼽았고, 염불(15.7%)·절하기(15.6%)·독경(10.9%)·사경(12.2%) 순이었다. 최근 수행 종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빠사나 수행을 꼽은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발전시켜야 할 것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일반인의 경우 사찰 문화에 접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불교에 접하지 못한 일반인의 경우 사찰 문화에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불교에 접하지 못한 일반인의 경우 사찰 문화에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불교에 접하지 못한 일반인의 경우 사찰 문화에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수행’ 38.5%로 압도적, 다음 사회복지

수행전통이 38.5%로 압도적이었다. 한국불교의 가치와 미래가 바로 수행전통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뀌 말하면 수행전통을 옹호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곧 불교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인 셈이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를 보인 분야는 복지다. 응답자의 18.7%가 이 항목을 꼽았다. 이는 현재 증가폭지를 포함한 불교복지와 불교의 사회적 복지활동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찰 문화(13.9%)·계율정신(7.7%)·사상체계(5.3%) 순이었으며, 교리(4.7%)·환경문제(3.3%)·문화재

존경받는 성직자

불교에 이어 세 번째(11.5%)로 나타난 것은 곱씹어볼 만하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는 20.9%가 존경하는 성직자가 없다고 답해 종교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덕과 윤리 의식이 가장 높은 종교인에는 불교(34.2%)가 꼽혔으며, 천주교(29.0%)가 그 뒤를 이었다. 스님과 불교신도들이 불교에 많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3.8%로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천주교(32.3%)·불교(16.8%)·개신교(11.4%) 순으로 답했다.

10명중 4명이 신부 응답, 스님은 두번째

불교신도와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사찰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응답자의 40.1%가 ‘이미 방문해본 적이 있으며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계획은 없지만 가보고 싶다’는 응답도 26.7%나 됐다.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응답자는 11.7%였다.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15.6%였으며, ‘가보고 싶지 않다’는 대답은 1%로 극소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응답자 10명중 8명이 사찰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사찰을 찾거나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

사찰 방문 계획

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만 따로 분석한 결과 ‘방문 경험’이 있고 다시 방문할 계획(31.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계획을 세워놓았거나 방문하고 싶다는 대답도 36%에 달해 사찰이 국민의 휴식처이자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불교계는 이같은 흐름을 고려해 최근 일반인과 기업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템플 스테이나 사찰 체험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등의 확대 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신분
①스님 200명(28.13%) ②스님 외 성직자 15명(2.11%) ③불교신도 327명(45.99%) ④일반인(무종교인)이나 불교 외 종교인 167명(23.49%) ⑤무응답 2명(0.28%)

■연령
①10대 10명(1.40%) ②20대 90명(12.66%) ③30대 97명(13.64%) ④40대 187명(26.31%) ⑤50대 197명(27.79%) ⑥60대 이상 130명(18.20%)

■성별
①남 377명(53.02%) ②여 334명(46.98%)

■거주지
①서울 188명(26.44%) ②인천·경기 134명(18.85%) ③강원 34명(4.78%) ④대전·충남 57명(8.02%) ⑤충북 25명(3.52%) ⑥부산·경남 83명(11.67%) ⑦대구·경북 117명(16.46%) ⑧광주·전남 38명(5.34%) ⑨전북 22명(3.09%) ⑩제주 13명(1.83%)

1. 계율이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64.7%) ②아니다(34.9%) ③무응답(0.4%)

2. 출가자의 음주와 육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본분에 어긋나는 일(32.6%) ②음주는 반대, 육식은 어느 정도 괜찮다(30.2%) ③육식은 반대, 음주는 어느 정도 괜찮다(2.4%) ④둘 다 어느 정도 괜찮다(30.0%) ⑤둘 다 무방하다(4.8%)

3. 출가자가 개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안하는 것이 좋다(12.9%) ②승용차는 괜찮다(11.9%) ③문제시할 일이 아니다(42.6%) ④사람이나 단체 등의 명의로는 괜찮다(32.6%)

4. 출가자가 스승의 고향과 스키 등의 스포츠를 즐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본분에 어긋나다(37.8%) ②국민정서상 안하는 것이 좋다(36.4%) ③건강을 위해서라면 괜찮다(19.7%) ④무방하다(5.9%) ⑤무응답(0.2%)

5. 불교에서는 출·제가 모두 5계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보는지, 점수를 주신다면(10점 만점 기준)
5-1. 스님의 경우는?
①9점 이상(17.4%) ②8점(17.3%) ③7점(33.6%) ④6점(16.2%) ⑤5점 이하(9.0%) ⑥무응답(6.5%)

5-2. 재가자(불교신도)의 경우는?
①9점 이상(4.2%) ②8점(10.1%) ③7점(22.1%) ④6점(28.5%) ⑤5점 이하(29.0%) ⑥무응답(6.1%)

6. (스님들만 응답) 출가 이후 육식, 음주, 흡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봤다-○, 해보지 않았다-x)
①육식-○, 음주-○, 흡연-○(21.0%) ②육식-○, 음주-○, 흡연-x(33.5%) ③육식-○, 음주-x, 흡연-○(4.0%) ④육식-x, 음주-x, 흡연-x(27.0%) ⑤육식-x, 음주-○, 흡연-○(0.5%) ⑥육식-x, 음주-x, 흡연-x(2.5%) ⑦육식-x, 음주-○, 흡연-x(2.5%) ⑧육식-x, 음주-x, 흡연-x(9.0%)

7.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①산사(山寺)(41.5%) ②수행하는 스님(35.4%) ③ 불상(11.5%) ④ 불 구(佛具)(2.3%) ⑤ 기도(3.2%) ⑥ 불사(佛舍)(3.7%) ⑦ 기타(1.1%) ⑧ 무응답(1.3%) ⑨ 절하기(1.5%) ⑩ 무응답(5.5%)

8. 사찰이 개선해야 할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2개까지 가능)
①스님 자질(19.0%) ②신도 자질(6.7%) ③내부 분열(10.8%) ④사찰총회 부족(14.6%) ⑤기부회(11.5%) ⑥사찰대중의 불투명(7.9%) ⑦세속화(3.2%) ⑧보수적 마인드(개혁성향 부족)(7.1%) ⑨기타(0.2%) ⑩무응답(19.0%)

9. 불교의 변화가 필요하더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개혁적 변화 필요(36.4%) ②어느 정도의 변화 필요(58.4%) ③이대로가 괜찮다(4.2%) ④무응답(1.0%)

9-1. (9번 질문에 ①, ②번에 답한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①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30.4%) ②사회에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29.1%) ③다른 종교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22.8%) ④구습과 구태가 여전하기 때문(17.4%) ⑤기타(0.3%)

10. 한국불교가 가장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①수행전통(38.5%) ②문화재 발굴 보존(2.7%) ③불교문화(13.9%) ④교리(4.8%) ⑤계율정신(7.7%) ⑥템플 스테이(2.4%) ⑦사상체계(5.3%) ⑧복지문제(18.7%) ⑨환경문제(3.4%) ⑩기타(0.3%) ⑪무응답(2.3%)

11. 불교가 지금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그렇다(44.0%) ②아니다(32.8%) ③모르겠다(21.5%) ④무응답(1.7%)

12. 우리나라 종교인들 중 어떤 종교의 성직자가 가장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불교(36.3%) ②개신교(52.2%) ③기독교(41.3%) ④원불교(0.7%) ⑤천도교(0.3%) ⑥유교(0명) ⑦민족종교(0명) ⑧기타(1.3%) ⑨없다(11.5%) ⑩무응답(3.4%)

13. 어떤 종교의 종교인들이 도덕적 윤리의식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①불교(34.2%) ②기독교(3.8%) ③천주교(29.0%) ④원불교(2.4%) ⑤유교(1.3%) ⑥천도교(0.1%) ⑦민족종교(0.1%) ⑧기타(2.7%) ⑨대부분 높다(9.0%) ⑩대부분 낮다(14.6%) ⑪무응답(2.8%)

14. 미래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불교(75.0%) ②기독교(55.5%) ③천주교(66.3%) ④원불교(0.6%) ⑤유교(0.3%) ⑥천도교(0명) ⑦민족종교(0.6%) ⑧기타(2.4%) ⑨없다(7.5%) ⑩무응답(1.8%)

14-1. 14번 질문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①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18.6%) ②그 종교 성직자들의 자질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7.4%) ③그 종교의 교리가 미래사회에 걸맞은 사상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57.4%) ④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14.1%) ⑤무응답(2.5%)

15.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찰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십니까?(일반인과 불자만 응답)
①계획을 세워놓았다(11.7%) ②계획은 없지만 가보고 싶다(26.7%) ③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15.6%) ④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1.0%) ⑤이미 방문해본 적이 있고 또 방문할 계획이다(40.1%) ⑥무응답(4.9%)

16. 귀하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불교 수행법은?
①참선(47.0%) ②염불(15.7%) ③독경(11.0%) ④위빠사나(1.5%) ⑤사경(2.2%) ⑥절하기(15.6%) ⑦기타(1.5%) ⑧무응답(5.5%)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p>공생선원</p> <p>주 지 무각(無覺)</p> <p>사무대중일동</p> <p>■ 서울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08호 TEL 02)900-2448</p>	<p>대한불교조계종</p> <p>승림사</p> <p>주 지 성덕</p> <p>대중일동</p> <p>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TEL 054) 976-8116 FAX 054) 976-6802</p>	<p>대한불교 총화종 경복교구</p> <p>포항운주산도선사</p> <p>종무원장 운산</p> <p>주 지 신도일동</p> <p>※갑신년 해맞이 기원대법회 법어: 화담대종사 일시: 2003년 12월 31일 저녁 7시 ~ 2004년 (갑신년) 1월 1일 오전 12시 까지 장소: 포항시 북구 해수욕장 (불자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2리 1488 TEL 054) 246-4467 FAX 054) 241-4718</p>	<p>대한불교조계종</p> <p>연화산 옥천사</p> <p>적멸곡락보궁건립추진위원회</p> <p>증명법사 고산</p> <p>회 주 현성</p> <p>주 지 지성</p> <p>사무대중일동</p> <p>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055)672-0100, 672-0489 FAX 055)672-0481</p>	<p>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p> <p>경남종무원</p> <p>종무원장 임지수 스님</p> <p>총무국장 김도원 스님</p> <p>교무국장 안무연 스님</p> <p>재무국장 송연화심 교임</p> <p>사회국장 이지명 스님</p> <p>의전국장 손덕산 스님</p> <p>포교국장 박지선 스님</p> <p>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4-9 TEL 055)356-9602</p>
---	--	---	---	--